

2019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8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가)는 ‘상대를 배려하며 말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대화 자료이고, (나)는 차시별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대화상의 문제점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가) 대화 자료

[국어 수업 시간에 수행 평가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후를 중심으로 모둠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현희: (속상한 표정으로) 이제 우리 어떡해. 수행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데.

태수: (정후에게 거친 말투로) 야! 한심하다, 한심해. 대체 왜 그래? 멍청하게 중간에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떡해?

정후: (멋쩍은 표정으로) 아이, 내용이 연결 안 되잖아. (작은 목소리로) 어찌라고…….

민우: 남자가 여자처럼 앵앵대기는.

유리: 잘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께 다시 발표한다고 말해 볼까? [A]

현희: 우리 기분도 그런데, 같이 공원이나 갈까?]

… (하략) …

(나) 차시별 수업 계획

차시	학습 내용
1차시	○ 동기 유발: 대화 예절 관련 동영상 시청 ○ 말하기의 문제점 파악 1 - ㉠ 공손성의 원리(정중어법) - ㉡ 체면 유지 원리(예의 이론) ○ 말하기의 문제점 파악 2 - ㉢ 협력의 원리 ○ 말하기의 영향력 이해
2차시	○ 1차시의 말하기 문제점 조정 및 해결 방법 탐색 ○ 배려하는 말하기 - ‘나-전달법’, ‘우리-전달법’ … (하략) …

<작성 방법>

- ㉠을 활용하여 (가)의 ‘태수’의 말하기 문제점을, ㉡을 활용하여 (가)의 ‘민우’의 말하기 문제점을 각각 서술할 것.
- ㉢을 바탕으로 [A]에서 ‘현희’가 어긴 격률을 쓰고, 이를 통해 현희가 의도한 대화 함축의 의미를 추론하여 서술할 것.

2. 다음은 연결 어미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결합에 관한 탐구 학습의 내용이다. ‘자료 분석’의 ㉠을 활용하여 ㉡, ㉢을 각각 서술하십시오. [4점]

문제 제기	연결 어미 ‘-지만’과 달리, 연결 어미 ‘-고서’, ‘-면서’, ‘-게’ 앞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자료 수집	(1) 가. 내가 지금은 바쁘지만 그때는 한가했다. 나. 내가 그때는 바빴지만 지금은 한가하다. (2) 가. 지수는 밥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 나. *지수는 밥을 먹었고서 학교에 갔다. (3) 가.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나. *나는 음악을 들었으면서 책을 읽었다. (4) 가. 바람이 잘 통하게 창문을 열어 두었다. 나. *바람이 잘 통했게 창문을 열어 두었다. (*는 비문 표시임.)
자료 분석	※ ‘-었-’이 나타나는 연결 어미 ‘-지만’의 의미 (1)의 연결 어미 ‘-지만’은 대조를 나타내므로 앞문장의 사건과 뒷문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대조됨을 의미한다. ※ ‘-었-’이 나타나지 않는 연결 어미 ‘-고서’, ‘-면서’, ‘-게’의 의미 (2) _____] ㉠ _____] (3)의 연결 어미 ‘-면서’는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앞문장의 사건과 뒷문장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남을 의미한다.] ㉡ (4) _____] ㉢ _____]
결론	연결 어미 ‘-지만’과 달리, 연결 어미 ‘-고서’, ‘-면서’, ‘-게’는 앞문장의 사건과 뒷문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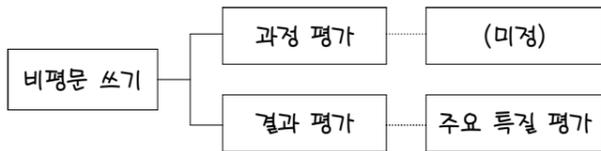
3. 다음은 비평문 쓰기 단원의 평가 계획에 대해 두 교사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이다. 주요 특질 평가(주요 특성 평가)와 사고 구술 평가의 장점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김 교사: 이 선생님, 제가 비평문 쓰기 단원을 가르치기 전에 평가 계획을 세웠는데, 검토해 주시겠어요?

이 교사: 예, 그렇게요.

[평가 계획]

- 평가 목표: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비평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 중점: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를 두루 평가한다.
- 평가 방법



○ 평가 도구

• 쓰기 과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고 주장이나 견해를 명료하게 드러나는 비평문을 씁니다. 이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문제점을 근거를 들어 비판합니다.

• 평가 기준

1.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였는가?
2. 자신의 관점에 따른 주장이나 견해를 명료하게 제시하였는가?
3. 상대 관점의 문제점을 근거를 들어 비판하였는가?

이 교사: 비평문 쓰기 단원을 지도하면서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를 모두 활용하실 계획이네요.

김 교사: 예, 그렇게 하려고요. 아직 과정 평가는 확정하지 못했고, 결과 평가로는 주요 특질 평가를 하려고 해요. 이전에 총체적 평가를 해 봤는데, 좀 더 ㉠과제 지향적인 평가를 해 보고 싶어서요.

이 교사: 그렇군요. 그럼 과정 평가로 사고 구술을 활용하시는 건 어떤가요? 사고 구술은 평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학생들이 사고 구술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가 중점을 고려한다면 의미가 있겠어요.

김 교사: 아, 그런가요? 사고 구술로 인지적 요소를 평가하는 건 알겠는데, 정의적 요소도 평가할 수 있나요?

이 교사: 예, 그럼요. 제가 이따가 제 수업에서 수집한 ㉡정의적 요소가 드러나는 사고 구술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김 교사: 아, 고맙습니다. 과정 평가 방법으로 사고 구술을 추천하시니 꼭 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평가 도구는 어떤가요?

이 교사: 주요 특질 평가에 사용하실 평가 도구네요. 음, 쓰기 과제의 맥락을 좀 더 구체화하고,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평가해야 할 주요 특질을 먼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또 쓰기 수행의 수준을 설명하는 평가 척도를 평가 기준에 설정해 놓으면 평가하기가 더 수월하지요.

<작성 방법>

- 주요 특질 평가를 ㉠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되, 주요 특질 평가의 장점을 포함할 것.
- 과정 평가로서 사고 구술 평가의 장점을 서술하고,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 예상되는 ㉡의 예를 제시할 것.

4. (가)와 (나)는 긴밀한 상호 텍스트성을 보여 주는 연작 소설이다. 두 작품의 의미 구조상의 연관성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 어머니 · 영호 ·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 (중략) …

㉠ 형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형은 언제나 나보다 생각이 깊었다. 아는 것도 많았다. 학교를 그만두자 더 많은 책을 읽었다. 아버지가 난장이만 아니었다면 형은 학자가 될 사람이었다. 형은 틈만 있으면 책을 읽었다. 나는 형을 위해 기계에서 돌아 나오는 인쇄물을 접어다 주고는 했다. 아주 어려운 것도 형은 참고 읽었다. 돈을 타면 헌책방에 가서 사다 읽기도 했다. 책은 형에게 무엇이든 주었다. 형은 고민하는 사나이의 표정을 종종 지어 보이고는 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공책에 옮겨 적기도 했다. 형의 공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적혀 있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젖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다. /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재난의 나라이다. 누가 감히 폭력에 의해 질서를 세우려는가? / 십칠 세기 스웨덴의 수상이었던 악셀 옥센스티르나는 자기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세계가 얼마나 지해롭지 않게 통치되고 있는지 아느냐?” 사태는 옥센스티르나의 시대 이래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 지도자가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희생이라는 말은 전혀 위선으로 변한다. 나는 과거의 착취와 야만이 오히려 정직하였다고 생각한다. /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웃집에서 받고 있는 인간적 절망에 대해 눈물짓는 능력은 마비당하고 또 상실당한 것은 아닐까? / 세대와 세기가 우리에게 쓸모도 없이 지나갔다. 세계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 무엇 하나 주지 못했고, 가르치지도 못했다. 우리는 인류의 사상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못했고…… 남의 사상으로부터는 오직 기만적인 걸쭉질과 쓸모없는 가장자리 장식만을 취했을 뿐이다. / 지배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할 일을 준다는 것,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일, 그들이 목적 없이 공허하고 황량한 삶의 주위를 방황하지 않게 할 어떤 일을 준다는 것이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나)

아버지가 왜 그 따위 생각해야 된단 말인가.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 말고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할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작은 악당은 몰랐다.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그 작은 몸 속에 모진 생각들만 처넣고 사는, 이런 부류들을 ㉡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 · 경영 · 경쟁 · 독점을 통해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저희들은 무서운 독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 간다고 단정했다. 그 중독 독물이 설혹 가난이라 하고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저희 자유의사에 따라 은강 공장에 들어가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장 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었다.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도 나아졌다. 그런데도 찡그린 얼굴을 펴 본 적이 없다. 머릿속에는 소위 의미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 사회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늘 욕망을 억누르고, 비판적이며,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는 했다. 이상에 현실을 대어 보는 이런 종류의 엄숙주의자들은 생각만 해도 넋더리가 났다. 그중의 하나가 이제 살인까지 했는데 변호인은 그를 살려 내기 위해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을 증인으로 불러냈다. 한지섭이었다. 그가 증언대로 올라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가 조금 큰 악당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남쪽 공장에서 올라왔다는 그는 손가락이 여덟 개밖에 안 되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 두 개를 잃었을 것이다. 콧등도 다쳐 납작하게 내려앉았고, 눈 밑에도 상처가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손가락이 여덟 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다. 잃은 두 개가 사물에 대한 그의 이해에 끼쳤을 영향을 나는 생각했다. 그는 객관적인 눈까지 잃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 조세희,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

<작성 방법>

- ㉠이 ㉡의 계층에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가)에서 찾아 쓰고, ㉡이 ㉠의 계층에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나)에서 찾아 쓸 것.
- 가난에 대한 ㉠과 ㉡의 인식의 차이를 본문의 표현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5. (가), (나)의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찌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 김수영, 「푸른 하늘을」 -

(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닭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밭걸음도 조심
 마음 아무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작성 방법>

- (가), (나)에서 시적 화자가 인식한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각각 서술할 것.
- (가), (나)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어조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

7. <보기 1>과 <보기 2>는 중세 국어의 파생 명사와 명사형을 탐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탐구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보기 1>

파생 명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언이다. •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 서술격 조사와의 결합으로 서술어를 이룬다. <li style="text-align: center;">⋮
명사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언이다. •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 서술격 조사와의 결합 없이 서술어를 이룬다. <li style="text-align: center;">⋮

- <보기 2>
- 엇데 空華 | 여름 여로매 다르리오
 - 므슴 뿌물 꾀리이 흥놋다
 - 널굽 거르물 거르시고
 - 法 드로미 어려보니
 - 終은 므츄미라

- <작성 방법>
-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중세 국어의 파생 명사와 명사형을 각각 찾아 모두 쓰고,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의 형식도 각각 밝힐 것.
 - <보기 2>의 중세 국어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로부터 이어진 현대 국어 형식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8. 다음은 김 교사가 『박씨부인전』을 제재로 시행한 문학 수업의 형성 평가 계획과 평가 도구 및 결과 자료이다. 김 교사의 수업에 대하여 동료 교사의 입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10점]

[평가 계획]

- 단원 학습 목표: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평가 중점: 지식보다는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
- 평가 목표

평가 목표	해당 문항
1.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 상황과 실제의 역사적 상황 사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서술형 1
2. 문학이 역사적 상황을 형상화한 방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서술형 2

[평가 도구 및 결과 자료]

- 평가 제재

[앞의 줄거리] 추한 외모로 태어나 이시백과 결혼한 박씨 부인은 인간의 액운을 다 면하고 아버지의 도술로 미인으로 변신한 뒤 병자호란을 예측하고 준비한다. 자객으로 조선에 온 호국의 공주를 혼내고, 조선을 침입한 호국의 부원수 용골대를 죽인다. 용골대는 전쟁을 끝내고 귀국하는 길에 동생 골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박씨 부인의 거처를 침범하나, 계획을 앞세운 박씨 부인의 도술 앞에서 제압당한다.

호장 등이 감주를 벗어 안장에 걸고 손을 묶어 팔문진 앞에 나아가 복지 청죄하여 가로되,

“소장이 천하에 횡행하고 조선까지 나왔으되 무릎을 한 번 꿇은 바가 없더니, 부인 장하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하며 머리 조아려 애걸하고 또 빌어 가로되,

“왕비는 아니 모셔 가리이다. 소장 등으로 길을 열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무수 애걸하거늘, 부인이 그제야 주렴을 걷고 나오며 대질 왈,

“너희 등을 씨도 없이 함몰하자 하였더니, 내 인명을 살해함을 좋아 아니하기로 십분 용서하나니 네 말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말며, 너희 등이 부득이 세자 대군을 모셔 간다 하니 그도 또한 천의를 좇아 거역지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하여 모셔 가라. 나는 앉아서 아는 일이 있으니, 불연즉 내 신장과 갑병을 모아 너희 등을 다 죽이고 나도 북경에 들어가 국왕을 사로잡아 설분(雪憤)하고 무죄한 백성을 남기지 않으리니, 내 말을 거역지 말고 명심하라.”

한대, 울며 다시 애걸 왈,

“소장의 아우의 머리를 내어 주시면 부인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대소 왈,

“옛날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를 훑칠하여 술잔을 만들어
이전 원수를 갚았으니, 나도 옛날 일을 생각하여 골대
머리를 훑칠하여 남한산성에 패한 분을 만분지일이나
풀리라. 너의 정성은 지극하나 각기 그 임금 섬기기는
일반이라. 아무리 애걸하여도 그는 못하리라.”

올대 차언을 듣고 분심이 충천하나, 골대의 머리만 보고
대곡할 따름이요 하릴없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니, 부인이
다시 일러 왈,

“행군하되 의주(義州)로 행하여 임 장군을 보고 가라.”

올대 그 비계(秘計)를 모르고 내념에 헤오되,

‘우리가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으니 서로 만남이 좋다.’
하고, 다시 하직하고 세자 대군과 장안 물색을 데리고 의주로
갈새, 잡혀가는 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왈,

“박 부인은 무슨 복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안한히 있고,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타국에 잡히어 가는고? 이제 가면
하일 하시에 고국산천을 다시 볼꼬?”

하며 통곡유체(慟哭流涕)하는 자가 무수하더라.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웨어 가로되,

“인간 고락은 사람의 상사라. 너무 슬퍼 말고 들어가면
삼년지간에 세자 대군과 모든 부인을 모셔 올 사람이
있으니, 부디 안심하여 무사 득달하라.”

위로하더라.

- 「박씨부인전」 -

○ 평가 문항 및 답안

[서술형 1] 윗글에 형상화된 역사적 상황을 ㉠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병자호란의 경과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학생 답안 생략)

[서술형 2]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박씨부인전」과
<보기>의 시조를 감상한 내용을 ‘질문’의 항목
별로 쓰시오.

<보 기>

병자호란이 남긴 상처의 문학적 형상화는 갈래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박씨부인전」 등의 소설에서는 주로
호란 이후에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시조에
서는 이와 더불어 호란 당시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정서를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봉림대군이
지은 다음의 시조가 이를 보여 준다.

청석령(靑石嶺) 지나거나 초하구(草河口) | 어디미오
호풍(胡風)도 춤도 출샤 구즌비는 무스 일고
아프나 내 행색(行色) 그려 내여 님 계신 디 드리고자

질 문

질문 3: 윗글의 ‘의주’, <보기>의 시조의 ‘청석령’, ‘초하구’는
모두 한양에서 청나라로 가는 도정에 있는 실제의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들은 각 작품에서 문학적
형상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단, <보기>의
설명을 인용할 것.)

↳ 잘 모르겠어요 ㅠ.ㅠ

질문 4: 윗글에서 박 부인을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로
형상화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역사와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추론하면?

↳ 병자호란에서 패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조선이 승리한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전란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였다.

<작성 방법>

- 서론에는 ‘단원 학습 목표’가 형성 평가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술할 것. (단, 결론은 생략 가능함.)
- ‘평가 목표’를 ‘목표 1’과 ‘목표 2’의 순서로 배열한 이유와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서술할 것.
- ‘평가 중점’을 참고하여 ‘서술형 1’의 발문에서 ㉠을 명시한
김 교사의 의도를 추론하여 서술할 것.
- 김 교사가 ‘서술형 2’의 ‘질문 3’에서 의도한 모범적인 답안이
무엇일지를 추론하여 서술할 것.
- ‘질문 4’에 대한 학생 답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학습 지도
방안을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